

어떻게 12월을 보낼 것인가?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유난히도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다.

땅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최근에는 다리가 무너져서, 유람선에 불이 나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었다. 육교가 무너져 깔려 죽거나, 교통사고로 연간 만 여명의 생명을 잃는 등 많은 생명이 사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 해였다.

특히 압구정동 야타죽을 잡아서 처리하려고 살인 시설인 소각로까지 지하실에 설치하고 연습살인을 해온 지존과나, 자기 나이만큼 택시 승객을 살해하려 한 은보현, 법정에서 자기에겐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출감후 증인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 백주 신사동 네거리에서 20여명의 폭력배의 칼에 찔려 죽은 조계사 폭력배 동원책의 죽음과 국민학생 납치후 산으로 끌고가 나무에 묶어 질식사시키는 등 사고가 아닌 살인 사건도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다.

이런 중에도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찌르고 방화한 사건이나 부모가 자식을, 사병이 장교를 사살하는 등 사회 윤리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한 해였다.

양돈업계도 돼지의 생명을 어찌 사람의 생명에 비할 수야 없겠지만, 많은 사고로 돼지의 생명이 죽어간 한 해였다.

연초부터 자돈의 유행성 설사병(PED)로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자돈들이 떼죽음을 하였다. 한 달 분의 자돈이 모두 죽어간 농장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돼지값이 올라 돼지고기를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자돈 폐사로 겨울과 봄이 지나자 이번에는 살인적인 더위로 돼지 폐사가 이어졌다. 이번 여름의 폭서는 그 유래가 드물어 분만 자돈과 모돈의 피해가 많았다. 많은 모돈이 여름철 무더위로 임신이 안되고 재발정이 오는 등 피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 정부가 소시지 등 가공식품과 냉장육의 유통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현재 돼지고기의 냉장 유통기간 10일을 40일로) 그 속셈은 '94년 폭염으로 인한 95년 국내 돼지값 상승을 예상하고, 기왕 수입개방된 냉장돼지고기를 수출해 보겠다는 것과 앞으로는 가공식품(소시지, 돈가스 등)으로의 유통이 폭증할 것에 대비한 포석으로 생각된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너무 매력적인 축산물 소비시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의 축산농가에게는 사료, 동물약품, 축사 건축 및 각종 기자재 등 모든 생산자재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또 이들이 수입될때도 관세를 부과하므로써 한국 축산농민이 국제경쟁이 어렵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의

정부는 세계화 구상을
준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한국인의 위치에서 구상되어야 하고, 한국의
농민 입장이 반영 되어져야 한다. 국제화를 외치면서도
축산농민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요청에 “건은 돈 도로
지원하는데 웬 비과세” 한다면 농민과 정부의
시각 조정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축산물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즐겁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미국 정부가 육류수출협회 등 축산관련단체의 청원을 받아 한국의 육가공 제품 및 냉장육의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우리에게 가하는 압력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미국 정부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규탄하지만, 국가라는 이익집단에 종사하는 미국 공무원이 자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한국 농민이 보는 미국 정부와 미국 농민이 보는 미국 정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지존과를 보는 국민의 시각이 집도 없이 청량리 지하철 등에서 노숙하는 빈민의 입장에서 보면 압구정동 야타족들을 대충 청소하고 잡힐 것이지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또 압구정동 야타족의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살 생각은 안한다고 “세상 말세야” 하며 혀를 찰 것이다. 인천 북구청이나 부천시의 세무공무원들은 지존과에 잡히지 않고 경찰에 잡힌 것을 다행으로 알며 위안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화 구상을 준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한국인의 위치에서 구상되어야 하고, 한국의 농민 입장이 반영 되어져야 한다. 국제화를 외치면서도 축산농민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요청에 “건은 돈 도로 지원하는데 웬 비과

세” 한다면 농민과 정부의 시각 조정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보사부가 이번 미국의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농림수산부와 협조하여 처리해야 하는 가는 분명하다.

보사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국민이 부패한 고기나 소시지를 먹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와 사명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몇 일 전 서울대에서 한국이민 1세로 미국에서 국회의원에 재선된 김창준씨가 학생들의 질문에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을 듣고 학생들이 당황했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다.

학생들이 그를 미국의 국회의원으로 보지 않고 한국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에 미국의 협상 대표를 미국의 공무원으로, 미국의 협상 대표로 보지 않고 미국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실패한 경험들을 보아왔다.

우리 공무원은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 국민의 식생활과 보건향상을 위하고 한국 농민의 권익을 위해 협상에 임해야 하며, 우리의 주장이 합리적인 데도 힘에 의해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 